

日 삿포르 - 韓 대전시 경제교류 본격 물꼬

일 본 경제 5대 도시중의 하나인 삿포르와 대전시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 전망이다. 삿포르시 주최 'e-실크로드 2004' 행사에 참가한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월 26일 오전 10시 삿포르시청에서 우에다 후미오 삿포르 시장을 만나 양 도시간 정기적인 교류를 위한 '삿포르-대전시 경제협력의향서'를 전격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서문걸 재일동포 사업가, 김풍민 이머시스 대표 등 민간차원에서 양 도시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끝에 맺어진 첫 작품이다. 삿포르시측에서는 우에다 시장을 비롯해 시청 고위간부들 및 주요 언론이 대거 참석해 대전시와의 교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대전시측에서는 염홍철 시장, 오영환 삿포르 총영사, 성재수·안중기 시의원, 한의현 경제과학국장, 전재근 첨단산업진흥재단 본부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에다 시장은 "양 도시는 특히 IT산업의 강한 면모를 갖고 있다"며 "이번 경제협력 관계를 통해 양 도시



간 신뢰가 더욱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대전과 삿פור는 경제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인적교류, 문화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우선 양 도시간 정기포럼을 정례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염 시장은 대덕테크노밸리 정보교류센터에 '삿포르 비즈니스센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삿포르시에도 보다 원활한 관계구축을 위해 대전시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또 염 시장은 "필요하다면 삿포르와 직항로를 운행하는 것도 시도해볼 만하다"며 "이를 통해 양 도시의 축구단과 시립교향악단 등 관광문화교류도 추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에다 시장은 "대전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포럼과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에다 시장은 "오는 11월 대구에서 열리는 환경심포지엄 참석할 것"이라며 "이때 대전을 꼭 방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대전에 '컨벤션 기획사 양성과정' 개설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 불리는 컨벤션 산업을 이끌어갈 컨벤션 기획사 양성과정이 대전에 개설된다.

국내 최대 컨벤션 전문기획사 이오컨벤스(대표 오성환)는 대덕넷(대표 이석봉)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우송대학교에서 '컨벤션 기획사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앞서 이 과정을 위한 공개설명회가 지난 10일 오후 3시 우송대학교 학술정보센터 자양홀에서 열렸다.

이번에 개설되는 '컨벤션 기획사 양성과정'은 오는 5월 23일 실시될 제2회 컨벤션 기획사 2급 국가자격시험'에 대비하고 전문컨벤션 기획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소양교육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산·학·연을 통틀어 국내 컨벤션 산업 관련 분야의 저명 인사들이 대거 강사진으로 나선다. 과정은 10주간의 이론반과 7주간의 실기반으로 나뉘

며 이론반은 컨벤션산업론, 호텔관광실무, 컨벤션영어 등의 과정으로 구분된 실기반은 오는 5월 11일부터 개설될 예정으로 컨벤션 기획서 작성, 컨벤션영문서신 작성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이오컨벤스 오성환 대표는 "취업희망자 등을 중심으로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이 커다란 관심을 얻고 있지만 대부분의 강좌가 서울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컨벤션 산업의 신흥 도시 대전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과정의 수강대상은 일반인과 대학생이며 모집정원은 40명이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접수는 대덕넷 홈페이지(www.HelloDD.com)를 통해 가능하다.

문의 042-861-5005